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11
그리스도인 생활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11: 그리스도인 생활

- 11.1 서론
- 11.2 성결
 - 11.2.1 폭력 사용
 - 11.2.2 정치 운동
 - 11.2.3 세상 향락
- 11.3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천 사항들
 - 11.3.1 성서 공부
 - 11.3.2 기도
 - 11.3.3 전도
 - 11.3.4 에클레시아 생활
 - 11.3.5 떡과 잔:기념예배
- 11.4 혼인
- 11.5 성도의 교제

11.1 서론

침례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한다.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믿게 된다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부과된 책임이 더욱 더 크다는 것을 통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Nature)에 참여(參與)하게 되고(벧후.1:4),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는 것은(계.3:12), 너무나 큰 소망이므로 이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상기(想起)하고,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할 것이다.

학습 10.3은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은 그 육신의 소욕이 항상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생활하지 아니하는 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침례를 받은 후에 뒤따르는 새 생활의 책임들을 감수(甘受)하려는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비유적이지만, 그 침례에서 우리의 옛 본성, 옛 생활 방식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邪慾)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3:1-5).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의 세상 야망은 우리 육신성을 극복하는 야망으로 바꾸고, 하늘에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영의 것을 사모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육신의 성향(性向)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성으로 바뀐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그 육신성에 대항하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관하여,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렘.20:21)고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각(知覺)하고, 침례로서 순종하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생애 전체를 그 명령들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위해야 할 것이다.

2 그리스도인 생활

11.2 성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웨여”(사.6:3). 이 구절의 삼중(三重) 역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많은 구절 중의 하나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리(分離-separation)’를 의미하고 있다. 부정한 것들에서 분리, 그리고 영의 것들로에 분리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1:15-16; 례.11:44).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분부를 받고 있다(엡.5:1).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생활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와 그 홍해의 침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출.19:6). 그와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후,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므로 “거룩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딤후.1:9). 침례를 받은 후, 우리는 “거룩한 자의 종이 된 것이다”(롬.6:19,22).

그런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로,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모든 자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그의 본성을 받을 때에(히.12:10; 벧후.1:4),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활에서 거룩함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히.12:14). 만일 신자가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확증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그 나라에서 그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놀라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영원성(永遠性)을 위한 분리(separation), 즉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분리’는 어떤 강요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분리는 하늘의 부르심과 소망에 대한 것이므로, 온갖 육신적 원칙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것들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분리할 것들에 관하여 고찰해보고, 그리고 학습 11.3 에서는 우리가 분리되어야 할 그 실제 사항들에 관하여 학습하기로 하겠다.

11.2 권력 사용

우리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정부들은 성서에서 ‘마귀(Diabolos-對敵者)’라고 하는 육신성의 정욕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마귀’라고 부른다고 학습 6.1에서 이미 학습하였다.

성서에 반복된 메시지는 죄와 뱀의 후손이 일시적으로 승리할 것을 나타냈으나,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여러가지 일시적 고난은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자는 끊임 없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마.5:39; 롬.12:17; 살전.5:15; 뱀전.3:9).

우리는 세상에 악이나 재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며 그가 일으키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사.45:7; 암.3:6, 학습 6.1과 비교). 그러므로 실제로 악한 자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겔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마.5:39,40). 그리스도는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신 본보기이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사.50:6).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신자의 행동에 반(反)하는 세상법에 소송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행한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으로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롬.12:19),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신자가 취할 행위가 아니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악을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잠.20:22; 신.32:35과 비교).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행동을 취했던 고린도 에클레시아를 노골적으로 책망하였다(고전.6:1-7).

우리는 그 위대한 소망을 생각하고, 이 세상 불의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1-2). 소유권 문제든지, 이혼 문제든지 간에 세상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신자의 취할 행동이 아니다.

악한 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악당의 힘, 또는 인간 정부의 경찰력이나 병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만든 제도적 형태가 있지만, 신자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26:52). 이것은 반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9:6).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의로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가가 없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관할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항상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5:44; 눅.6:27)는 명령을 명심해야 한다. 병력과 경찰력이 그의 명령에 위배됨으로 신자는 그런 직업을

4 그리스도인 생활

피해야 한다. 직접 그런 폭력 단체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에서 일하거나, 또는 고용되어 가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조직체에 고용될 때는, 당국에 충성을 선서해야 하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양심에 가책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경찰이나 군 복무에 관해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비록 국가에는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은 지켜야 할 것이다.

11.2.2 정치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 인간의 정권들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어떠한 정치 단체에 가입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말세에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의 재림 직전에는 아주 극도로 악해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셨다(눅. 21:9-11, 25-27). 그의 말씀을 믿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정치로 세상의 개선은 불가능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표본적 생활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분부를 받고 있다(갈. 6:10).

초기 신자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면서, 주로 그들이 전파해야 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 사회의 정치든가, 또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하나이다”(렘. 10:23). 인간성의 죄악과 그 오류를 확실히 인식한다면, 인간의 정치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선거든가 기타 정치 행사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렀느니라”(단. 4:32). 이와 같이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것이다(롬. 13:1). 그러므로 비록 선거에서 당선되어 통치자가 되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나라들을 주어 관할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다(렘. 27:5,6):-

-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게 하지 않는 한, 모본 국민이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 13:1-7).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정당이나 사회단체라 해도 그것들에 가입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당국이 복음 전파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7-20; 5:28, 29).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에 상반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

11.2.3 세상 향락

세상은 장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향락 시설을 고안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 영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자는 오직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육신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니라”(갈. 5:17). 이 양자는 이같이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어 있다(요일. 2:16).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약. 4:4). 세상 친구를 사귀고, 세상 향락을 누리는 것은 곧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세상 정욕, 세상 벗들이 곧 사라질 것이다(요일. 2:15-17).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는 온 세상”(요일. 5:19),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벧후. 2:5)은 주의 재림으로 곧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요. 17:16; 계. 18:4과 비교하라).

육신을 즐겁게 하는 향락에 탐닉하므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자들이 많다. 흡연, 과음, 약물 복용등등이 그 실례들이다. 우리의 건강, 재정, 기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받은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심판에서 재판될 것이다. 흡연, 음주, 등등은 우리 재정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3:16, 17; 6:19, 20). 그러므로 흡연과 같은 나쁜 습관으로 몸을 망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만일 이런 나쁜 습관이 개종하기 전에 형성된 것이라면, 단숨에 그것을 단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그 습관의 피해를 확실히 인식하고, 서서히 끊으려고 노력하라. 우리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단지 휴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6 그리스도인 생활

해소하도록 하라.

11.3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천 사항들

11.3.1 성서 학습

침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를 받는 생활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롬.6:22; 8:1; 갈.5:16,25).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뤄지는 것이다(요.15:7,8). 영의 인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규칙적으로 성서를 읽고 그 말씀을 학습해야 한다.

주의 깊은 말씀 학습은 침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므로, 곧 그것을 시행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게하고 계속하여 우리 생활을 지도하게 해야 한다.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다. 성서와 복음의 기본 교리가 숙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위험이 올 때가 있다(부록.2를 참조하라). 이런 때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119:18)하고, 짧은 기도를 올리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의 일용할 양식처럼 먹어야 하며, 그것을 본능적으로 찾는 육체의 양식보다 더 열심히 사모해야 한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욥.23:12)한 것이 욥의 생각이었다. 예레미야도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렘.15:16). 그러므로 매일 규칙적 성서 읽기의 일정한 시간표 작성은 우리 일상 생활 패턴 수립의 중요한 것이다. 아침에 방해없는 30분간의 시간을 성서 읽기와 그 학습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바른 영적 출발이 된다. 이런 생활로 형성된 습관은 심판에서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성서의 한 부분만 읽곤 하는 경향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아델피안들은 “성서 읽기표”를 고안하여 작성하였다. 그것은 매일 몇 장씩을 읽어가게 되었는데, 그대로 읽어가면, 1년에 신약성서는 두번, 구약성서는 한번 읽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것에 따라 몇장의 성서를 읽을 때에, 세계의 다른 성도들도 자기와 같은 장들을 읽을 것을 생각하고 권면을 받으며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면, 최근에 읽은 것들이 그들의 대화의 근거가 되게 마련이다.

11.3.2 기도

성서 기본 지식

www.korbible.net

영적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 사항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실천 사항을 강조하여,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후.2:5-8)고 권면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히.4:15-16).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나님께 올리신다는 것의 인식은,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영감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기도는 단지 필요한 것을 나열하여 하나님께 제시하는 ‘요청서’가 아니고, 필요한 양식, 여행 중의 수호 등등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작성해보라.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큰 평안을 얻게 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확실히 응답을 받을 것이다(요일.5:14). 우리는 하나님의 영/말씀이 계시하신 그의 말씀인 성서를 학습함으로써 그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서 학습은 어떻게 기도할 것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힘있게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15:7).

성서에는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한 예가 많이 있다(시.119:164; 단.6:10).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생긴 모든 일에 짧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11.3.3 전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일어나는 큰 시험의 하나는 영적 이기주의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성서 학습과 영적 성장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 동료 신자와 세상 불신자와 즐거움을 나눌 가지려 하지 아니한다.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비추는 등대라고 비유하여 말하였다(시.119:106; 잠.4:18). 예수께서는 아무도

8 그리스도인 생활

불을 켜서 말아래 두는 자가 없고, 대중에게 비취다고 하셨다(마.5:15).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마.5:14; 요.8:12; 마.5:14).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음에 진정 일치되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그들의 세상 방법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실을 가장(假裝)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요령있게 진리의 지식을 나누기를 구해야 한다. 다른 교파 사람과 교리를 토의하고, 진도 책자를 배부하고, 광고란에 게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빛을 발해야 한다. 우리는 증거하는 일을 자신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아델피안은 다른 단체들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체이지만, 모두가 각자의 할 수 있는대로 자비로 복음을 전파한다.

성공율이 높은 전도 방법은 가까이 지내는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여 전하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파트너에게 분명하게 믿음을 설명해야 하며, 그것을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가르쳐야 한다. 강요하여 개종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우리의 본분은 응답자의 다소에 부담 없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증거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겔.3:17-21). 우리 생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두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눅.17:36).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만일 우리가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주의 재림을 말하지 아니하였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 상상해보자.

11.3.4 에클레시아 생활

이 학습까지는 우리 각 개인의 영적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진 다른자들과 함께 모일 의무가 있다. 다시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 생활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광야 여정(旅程)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동료-여행자들과 접촉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주의 재림 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우리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이 시대의 복잡한 시련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자주 모여야 하리라”(히.10:25; 말.3:16). 그러므로 신자들은 서신으로든지 방문으로든지 서로 접촉하여 성서 연구, 만찬 기념예배, 전도운동 등등, 함께 해야 하

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큰 소망으로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아’ 나왔다. ‘성도’라는 말은 ‘그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에 살았던 몇몇 유명했던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말은 “Ecclesia-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고 나온 무리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어떤 모임 장소가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잘못된 낱말을 피하려고, 그리스도아델피안은 ‘교회’라는 낱말 대신에 ‘에클레시아’로 부르고 있다.

어떤 도시에나 마을에 몇명의 신자가 생기는 곳에는, 그들이 규칙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한다. 어느 신자의 집이든가 또는 큰 홀을 임대해도 될 것이다.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함께 모여 성서 연구를 통하여 회원들 상호간에 도움이 되고, 또한 전도를 통하여 그들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므로 함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아델피안이 보통 행하고 있는 행사 스케줄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일요일 오전 11시 만찬 기념 예배
 오후 6시 대중 전도 집회
수요일 오후 8시 성서 학습 집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권속의 일부이므로, 밀접하게 결합한 어떤 공동체로서 각 회원은 다른 회원들에게 신중하고 유순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표본이었다. 분명히 그가 영적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중”으로서 행하였고, 제자들이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자인가 다툼이 있을 때에, 그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요.13:14-15; 마.20:25-28).

당시에 받았던 그 기적적 성령의 은사들은 지금 철수되었고, 초기 에클레시아에 있었던 ‘장로들’의 자리가 없어졌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23:8).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아델피안(Christ-Adelphian)은 모두가 세상 직위가 다르지만, 다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어떤 차별도 없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어온 믿음의 선배든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급속히 영적 성장을 이룬 형제들을 존경하고 있다. 이런 형제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만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반영을 위하여 충고할 뿐이다.

에클레시아의 가르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에서 권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다.

10 그리스도인 생활

하나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형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중에게 훈계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자는 에클레시아에서 잠잠하라. 저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라”(고전.14:34). 그것은 에덴동산의 사건으로 돌아가, 하와가 아담에게 범죄하도록 사수하였으므로, 여자는 지금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딤후.2:11-15).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을 지었다는 사실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것을 상징하는”(고전.11:3)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영적으로 여자를 인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자에 대한 이런 훈시가 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하므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여자가 정조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딤후.2:11-15).

이것을 보면 성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성도의 역할을 구별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일”(딤후.5:14) 등등, 주로 가사의 역할을 명령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에서 공공에 속하는 역사는 남자들의 몫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의상, 가사, 직업 모든 것에서 남녀 평등이라는 사상과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다만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남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된 신자는 항상 조화가 필수적이지만, 이 시대적 정신의 행위는 피해야 할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엡.5:25).

- “남편된 자들아, 이와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합한 그릇이요, 또 생명과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벧전.3:7).

영적 조건인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침례에 의하여,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된다(갈.3:27-28; 고전.11:11과 비교). 그렇지만 이것은 가정과 에클레시아 안에서 실천적 사항과 영적 문제들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분명한 그 원칙에는(고전.11:3) 변화를 주지 못한다.

이 원칙의 인식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성 신자는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언제든지 머리를 가리워야 한다. 이것은 모든 에클레시아 모임에서 여성 신자는 수건이나 모자를 써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남자가 머리에 쓰고 안 쓰는 방법으로 구별하였다(고전.11:14,1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남편 3절)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

는 머리 민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이러므로 여자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돌지니라”(고전.11:5,6,10).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면” 머리를 민 것과 같은 것으로, 머리털이 없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에 “쓴 것은” 머리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머리를 가리우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 쓰지 않으면 그녀의 본래의 머리(긴 머리)에 도움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리털 없이 나아가는 것과 같다.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전.11:7). 이것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머리 덮개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약 시대의 그곳 문화는 여자가 머리를 밀었던 유일한 시대이다. 여자가 머리를 민 것은 창녀, 또는 간음한 것을 나타내며, 또는 남편이 죽어서 기중(忌中)인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여자가 머리를 민 것은 남편을 잃었든가 또는 간통을 했으므로 그녀의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여자는 에클레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남자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을 의식하는 것같이, 여자는 그 머리를 가리우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그녀의 본래의 머리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반대되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여자의 긴 머리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녀의 머리는 그녀에게 가리움이 되는 것으로(고전.11:15), 그녀의 머리가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남자와 다른 것을 분간하려는 방식인 것이다. 남녀의 머리의 차이는 주로 여자의 구별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자의 긴 머리와 머리에 가리우는 것을 쓰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것을 단지 어떤 표시의 행사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자매가 참으로 영적이며 순종하는 품행을 가졌다면(벧전.3:5와 비교), 그녀는 신자인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할 것이며, 모든 면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명령의 이유를 하나님의 모든 다른 명령과 같이 인식한다면, 그것을 수행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매들이 에클레시아에서 할일이 항상 있다, -어린이 일요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공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제외한 기타의 여러가지 일의 주관자로서 관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영적으로 성장한 여자들은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다(딤후.2:3,4, -이스라엘 여인들을 인도했던 미리암과 비교하라. 출.15:20).

12 그리스도인 생활

11.3.5 떡과 잔 기념 예배

기도와 성서 읽기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가지라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22:19)고 예수께서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재림하여 다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규칙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의 소원이었다(눅.22:16-18).

그 떡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잔은 그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고전.11:23-27). 초기 신자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주 모였다(행.2:42-46). 적어도한 주일에 한번씩 모였을 것이다(행.20: 7).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요.15:11-14). 그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그가 요청하신대로, 그의 희생을 기념하려고 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그가 성취한 큰 구원을 우리 자신이 기억함으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의 고난을 반성하는 그 침묵의 순간 우리가 받고 있는 시련들은 우리 주의 것들과 비교할 때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떡을 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의식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결과로 어떤 마술적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아래 있던 유월절 행사와 같은 것이다(눅.22:15; 고전.5:7). 이것은 홍해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나온 큰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떡을 떼는 의식은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 십자가에서 가능케 한 것 그를 통하여 죄에서 나온 우리의 구원을 회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주일에 한번씩 떡을 떼는 것은 건강한 영적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만일 누가 진리의 동료 신자들과 이것을 행할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행해야 할 것이다. 이 명령의 준행을 중지하도록 허용한 어떤 변명도 찾아낼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 열매를 사용하셨으므로”(눅.22:18), 우리도 그런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물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다. “너희가 이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는 말씀(고전.11:26,27) 생각해 볼 때에,

그 귀한 몸과 피를 나타내고 있는 자리에 적당하지 못한 생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그 떡을 떼는 의식 시간과 장소는 생각을 산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택해야 한다. 아침 일찌기 또는 늦은 밤에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또 이런 충고도 받고 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전.11:28). 그러므로 그 상징물에 참여하기 전에, 복음서 기록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에 못박힌 광경을 상상하고, 우리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자신의 양심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의식의 적절한 순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구한다. 그의 말씀에 우리 눈을 열어주실 것과 다른 신자들의 필요한 것을 구한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타 다른 문제들을 위하여 구하나다.
2. “성서 읽기표에 작성된” 그 날의 부분을 읽는다.
3. 그 읽은 것에서 배운 교훈, 또는 권고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 예배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장들에 대한 성서 학습을 목상한다.
4.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다.
5. 자신을 성찰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
6. 떡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7. 잘게 자른 떡을 나눈다.
8. 잔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9. 잔을 든다.
10. 폐회식 기도.

11.4 혼인

우선 독신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생각함으로 이 학습을 시작하려고 한다. 학습 5.3에서 신자들의 혼인은 오직 침례를 받은 신자 형제와 자매가 하라는 것을 가르쳤다. 예수와 그리고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실례와 연상되는 몇 구절이 있다. 그것들은 생애 전체를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남아 있는 자들을

14 그리스도인 생활

격려하게 될 것이다(고전.7:7-9,32-38; 딤후.2:4; 마.19:11,12,29; 전.9:9과 비교).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고전.7:28). 대부분의 사도들이 혼인하였었고(고전.9:5),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과 같이 혼인은 실제로 많은 영적 혜택을 가져오게 고안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히.13:4).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아담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혼인제도를 정하여 돕는 배필을 얻게 하셨다(창.2:18-24). 그러므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웨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야웨로 말미암느니라”(잠.18:22; 19:14).

우리는 이제 남녀 관계의 균형잡힌 입장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전.7:9:-고전.7:1,2과 비교하라).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은 혼외 성행위는 간음이라는 것이다. 음행(혼인하지 아니 한 자들), 간통(결혼한 자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부도덕한 것에 대한 경고가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었다. 거의 모든 서신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그것들의 일부이다: 행.15:20; 롬.1:29; 고전.6:9-18; 10:8; 고후.12:21; 갈.5:19; 엡.5:3; 골.3:5; 살전.4:3; 유.7; 벧전.4:3; 계.2:21.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빚에 비추어 볼때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연약한 탓으로 순간적으로 범죄할 때에, 물론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저주를 받겠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신다(실례 뱃세바와 다윗의 간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주 언급하였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갈.5:19,21).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전.6:18; 딤후.2:22과 비교하라).

현대 사회는 젊은 남녀 쌍들이 혼전에 성관계하며 동거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다. 세상에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이 별로 없다. 신자의 결혼은 하나님의 제정에 따라 거행해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향락으로 제정한 결혼 개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정된 제도를 초월하여 용납할 수가 없다. 결국 결혼 제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에 따라야 한다. 성서적 혼인 제도는 다음 세가지로 형성되어있다:-

1. 어떤 결혼 예식은 매우 단순하다. 보아스와 롯의 결혼 기록은 그 결혼이 부지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완전히 결합되었던 것이다(롯.3:9; 4:13). 그리스도는 신랑이며 신자들은 신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채립하여 혼인하게 된다. 그 때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계.19:7-9). 남편과 아내간의 관계는 그리스도

와 신자들의 관계의 예표인 것이다(엡 5:25-30). 우리는 혼인의 결정적 시점이 있을 것인바, 그리하여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결합을 예표하고 있는 그들의 혼인이 시작되는 신자들과의 혼인식이 있을 것이다.

2.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혼인은 서로가 그 영적 언약에 충성을 할 것을 다짐하므로 시작되었으며(겔.16:8), 이것은 또한 신자들의 혼인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3. 성관계는 혼인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다(신.21:13; 창.24:67; 29:21; 왕상.11:2). 이런 까닭에 혼외의 성관계가 나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전.6:15,16).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한 쌍을 결혼으로 연합하게 하는 실제의 상태로서, 그 상징인 것이다(창.2:24). 그러므로 일시적 관계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들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으로 연합하여 실제 상태로 완성할 수 있게 고안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한 쌍이 함께 살게 된다. 따라서 혼전에 동거하는 것은 죄이다. 적합한 절차를 거쳐 혼인으로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다면, 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

혼인예식이든가 정상적 결혼의 개념이 없는 발전되지 못한 문화권에서는 복잡한 분규가 일어난다. 혼인식 같은 것 없이 그들 자신을 결혼한 것으로 여기면서 동거하며 살아가는 쌍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침례를 받으려면, 어떤 종류의 결혼 증서를 만든 후에 침례를 받게 해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혼인 관계를 당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증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의 배우자가 불신자일 때에 그를 버리지 말고, 그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나타내는 모든 노력으로 감화하게 하여, 한 믿음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전.7:13-15).

이것을 행하는 그 자체로서 불신의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있다(벧전.3:1-6).

혼인에 관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된 바가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 남편과 아내 간의 연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우리의 계속적 노력에 비유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근본적 죄와 이기주의의 극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노력은 그리스도든가 또는 배우자에 대한

16 그리스도인 생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다. 이것에 성공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완성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서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보기로 설정해놓고 있는 그 최고 성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와 실패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설정한 이상적 수준의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한 연합으로 전생을 살아가는 것이다(창.2:24).

신자들은 누구든지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굳게 동의했지만 마음의 연합이 상실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혼인의 완성은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침례 이전이겠지만, 일부 다처제의 문화권에서는 수명의 아내를 갖기도 하는 남자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신자는 더 이상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포용력과 하나님의 원칙에 철저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극도의 경우에는 헤어질 것을 권하고 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하라”(고전.7:10-11).

이것은 이상적 수준을 말하고 있지만, 성서의 특징인 기초적 하나님의 원칙을 경멸하지 않는 한, 보다 낮은 수준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있다.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고전.7:27-28). 그렇지만 고의적 이혼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경멸하는 것으로, 실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남자)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막.10:6-12).

성관계를 말하자면, 육신은 정욕의 남용을 정당하다고 그럴듯하게 변명하게 마련이다. 자기 자신이 특별히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학습에서 인용한 구절들을 반복 묵상하여 그것들을 물리칠 영의 힘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어떤 자들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혼인 제도의 근본 원칙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창.2:

24).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서로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남자가 아니고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다. 성서에는 남성들 간의 성관계를 반복하여 저주하고 있다. 소돔 도성이 멸망하게 된 조건의 하나가 이 동성연애 때문이었다(창. 18장-19장). 동성 연애자 소도마이트(Sodomite)라는 말이 소돔에서 생긴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롬. 1:18-32; 고전. 6:9, 10).

어쩌다가 그런데 한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신다. “야웨여, 주께서 죄악을 관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시. 130:4). 고린도 에클레시아에는 그런 도락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9-11). 이성에게 끌리는 정욕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동성연애를 금지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아니하는 것이다(고전. 10:13). 육신의 어떤 면이든 탐닉하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고 만다. 음주나 또는 약물 복용은 결국 규칙적으로 일정량의 흡입이 없이는 삶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고 방식을 바꾸고 치료하면, 정상적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다.

동성 연애도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에서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신다. 만일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방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옛날 이스라엘과 같이 처치하실 것이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順理)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逆理)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저주를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6-27).

이와 같은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Aids)” 질병에 관한 심각한 하나님의 예언에 고의로적으로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것의 어떤 저주가 내려졌는지 지각(知覺)하지 못하여 도덕적으로 부패할대로 부패한 우리의 현 세상이 날마다 대량으로 산출하고 있는 그 성병과 기타 여러 극악한 질병들을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11.5 성도의 교제

18 그리스도인 생활

“교제(交際)라고” 번역된 헬라어 “Koinonia”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것을 공유(共有)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것이 영어로 ‘common-union’으로, ‘communion’이 되었고, ‘communicate’, 즉 전달한다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히.13:16). “복음 안에 우리 교제를” 말한 것이 있다(빌.1:5).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의 근거는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교리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교제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와 겨제를 가질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며, 다른 어떤 단체나 교회 사람과의 교제는 별로 그 기쁨이 없다. 이 교제 때문에 우리는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서로 방문하며, 서신 왕래와 전화로 대화, 등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바울은 “영의 교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으로, 그 마음에 공동으로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교제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빌.2:1).

우리의 교제를 나타내는 가장 큰 표현은 떡을 떼는 기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초기 신자들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2-46). 이와 같이 교제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10:16,17). 그러므로 그의 사역에서 혜택을 입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떡과 잔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진리를 알고 적절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를 받은 자들만 그 위치에 있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은 자가 참여한다면 그 상징물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그 영생의 복음을 나누게 된 것을 이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1:2,3). 이것은 그 교제가 복음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근거에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와의 교제가 있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복음을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성을 더욱 더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다른 신자들과의 우리 교제는 단지 “한 믿음을” 구성하는 그 교리의 진리를 동의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 방법, 복음 실천이 그들이 표현한 그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

면, 거짓 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요일.1:5-7).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시.119:105; 잠.4:18)상반되는 생활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어찌다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구절에 계속된 말씀을 생각해 보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요.17:17; 3:21; 엡.5:13)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요일.1:8).

이것에서 그 교제는 신자가 거짓 교리를 수용하든가 또는 성서의 가르침과 분명히 반대되는 생활 방법을 공공연하게 시작할 때에 끊어지게 될 것이 분명해진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라”(엡.5:11). 선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을 본받아(눅.15:1-7) 그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형제나 자매가 거짓 교리든가 또는 그릇된 행동을 계속 고집한다면, 교제를 공식적으로 끊도록 할 필요가 있다(마.18:15-17). 그 실행에 있어서, 우리는 그 형제를 에클레시아의 책임 있는 형제들과 회견을 한 후, 그 사실을 그리스도아델피안 교지(敎誌)에 게재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알린다. 그러나 거짓 교리나 성서에 위반하는 그릇된 행위를 검토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고 하나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차피 성서의 근본적 가르침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기 마련이므로, 떡을 떼는데 공식적 참여만 삼가하게 해야 한다.

교제에 관하여 논한 분명한 구절들이 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후.6:14-18).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소위 교회와 교제하지 말아야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와 혼인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생활 방법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형제 자매로 구성된 하나님의 권속의 일부가 되어, 놀라운 전능자의 친 자녀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된 것이다. 오직 “한 몸인 에클레시아가” 있다(엡.1:23). 그들은 모두 “한 소망, 한 하나님, 한 침례, 한 믿음의” 교리를 붙잡고 있다(엡.4:4-6). 이 한 몸에서 떨어져 나와 그 참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는 소위 교회와는 교제할 수 없는 것이다. 빛이 어두움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자와 교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 그리스도인 생활

우리가 진정 성서에서 계시된 교리의 진리 체계를 인식했다면, 하나님과 아무 교제도 없는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의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본 학습들을 성실하게 배웠다면, 지금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간적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로 “그의 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의 밖에 있을 것이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참된 복음 교리를 파악하고 그 실천으로 빛이 되었느냐, 아니면 어두움이냐, 그 양자에서 택일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들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지식에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리를 행하든가 생활을 영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열심히 지켜 보시고 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당신의 옳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은, 그의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당신을 도와 드리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구원은 당신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큰 소망을 붙잡으려고 결심할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학습 11: 학습 문제와 해답

1.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2.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 불신자와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
 - b) 죄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
 - c) 교회에 가는 것
 - d)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3. 어떤 직업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적당한가?

4. ‘성도’와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인가?

5. 다음 것 중에 어느 것이 떡을 떼는데 바른 태도인가?
 - a) 매주일 떼다
 - b) 일년에 한번씩 유월절에 떼다
 - c) 그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예수와 그의 피와 살로 변화한다.
 - d) 그 포도주와 떡은 예수와 그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
6. 다음 것 중에 어느것이 혼인에 바른 것인가?
 - a) 오직 신자하고 결혼한다
 - b) 신자도 이혼이 성립된다
 - c) 상대가 불신자일 경우 그 신자는 이혼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
 - d) 결혼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아내는 신자를 나타낸다.
7. 여자가 에클레시아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가?

8. 진리를 알고 침례를 받은 후에도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